

**Fire
News**

**PC통신(국내, Web)에서 발췌한
각종 화재·폭발 사고를 제공.**

97/ 06/ 15 서대구 열병합발전 증기관 폭발

7시 15분경 대구 서구 평리6동 서대구 염색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 내 터빈실에서 수축식 고압 증기관이 폭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발전담당 작업인부 2명이 터빈 1호기의 작동을 중단하고 2호기를 가동시킨 뒤 10여분이 지나자 터빈기와 연결된 고압증기관이 과열되면서 폭발.

97/ 06/ 15 방글라데시 가스田서 화재 발생

방글라데시 동남부 다카 동쪽 1백90km 지점의 실헤트 마을 인근에 위치한 한 가스田에 새벽에 화재가 발생, 수백명의 주민들이 대피.

화재발생 40분전 지하 8백40m 지점 파이프라인에서 구멍이 발견돼 이를 수리한 직후 갑자기 폭발했다고 하는데 가스압력을 제어하는 장치의 결함 때문으로 추정.

다행히 사고현장에 인부들이 근무하지 않아 사상자는 없었으나 시추장비와 트레일러, 기중기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철로가 파괴되어 운행이 중단.

97/ 06/ 22 단독주택에 불 일가 4명 사망

20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77의 23 박동현씨 집에서 불이나 박씨의 아버지와 부인, 딸 자매 등 4명 사망.

경찰은 「평」 하는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에 치솟았다는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라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

97/ 06/ 23 미국 Shell Chemical Co. 에서 폭발

11시 35분경 미국 Texas Deer Park의 Shell Chemical Co.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음. 부상자는 적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환경보호기관과 OSHA와 합동으로 조사중.

국내 유화업체는 Shell사의 사고로 특수화학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

97/ 06/ 26 빌딩7층의 레스토랑 전소

18시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울곡빌딩 7층 레스토랑에서 주방의 가스렌지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로 내부 200평을 태우고 2시간만에 진화.

건물 내의 300여명이 대피 소동을 벌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는 8,000만원으로 추산

97/ 06/ 28 봉제공장 화재

2시 30분경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봉제공장 복장사에서 불이 나 조립식 건물 150여평과 재단기, 원단 등을 태워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만에 진화.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아무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

97/ 07/ 06 가정집에서 불, 초등생 형제 사망

21시 50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의 가정집에서 불이나 전소.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불이 난 것 같다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누설가스의 폭발로 추정.

이 불로 아들 형제가 연기질식으로 사망.

97/ 07/ 07 전남 담양 방직공장에 불

01시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주)선일통상 방직공장에서 불이나 1천평의 철골조 건물 1채와 기계류, 원사, 완제품 등을 태워 9만에 진화.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

97/ 07/ 11 태국 파타야 호텔에서 큰불

10시경 방콕 파타야의 로얄 쉐르옌호텔에서 화재가 발생, 한국인 3명을 포함 모두 81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부상.

불은 호텔 1층 레스토랑 주방에서 발생, 윗층으로 급속히 확산, 8시간만인 오후 6시경 진화.

사고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데다 화재경보 및 비상방송도 없었고, 강한 바닷바람과 호텔에서 128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방대가 출동한 관계로 초기 진화에 실패.

화인은 주방의 취사가스통 폭발로 추정.

97/ 07/ 13 독일 난민수용소 화재, 21명 화상

독일 엔센의 외국인 난민 임시수용건물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모두 21명이 부상.

이날 불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1층 쇼파에서 시작되어 건물을 모두 태우고 진화.

97/ 07/ 15 신발공장에서 불, 재산피해 1억원

0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의 신발공장 영주산업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관중이던 수출용 완제품 신발 만여켤레를 태워 경찰

추산 1억원의 재산피해.

이 공장은 부도로 이틀전부터 가동을 중지했는데 갑자기 공장 내부에서 불길기 치솟아 올랐다고 함.

97/ 07/ 23 파리 박물관에서 화재

프랑스 파리 chaillot palace 박물관에서 불이 나 소장품 일부가 손상, 조각품은 수손피해.

피해는 제한적이나 약 8백만 달러의 재산피해.

97/ 07/ 24 쌍용정유 울산공장에 불

3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내 쌍용정유(주) 수소첨가물 분해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중화상.

열교환기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말에 따라 작업 도중 교환기 내부에 있던 油증기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조사중.

97/ 07/ 24 공장에서 화재

23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동상가 3층 광동섬유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공장내부 일부와 원단 등을 태워 3백여만원의 재산피해.

97/ 07/ 25 노래방에 화재, 1명 사망

3시경 전북 전주시 고사동 불티노래방에서 불이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가 숨지고 내부 30여평을 태워 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만에 진화.

97/ 07/ 25 전농동 재개발지역 화재

18시 40분경 동대문구 전농3동 전농 제4재개발지구에서 철거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며 높이 8m의 망루에 신나를 뿌리고 농성을 벌이던 중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를 위해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

불이나자 농성을 벌이던 주민들이 뛰어내리다 부상.

97/ 07/ 25 영천 주차장건물에서 불

16시 50분경 영천시 완산동 동양화물(주) 주차장 창고형 슬레이트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50여평 건물과 주차되어 있던 대형버스 2대 등 차량들을 태워 약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만에 진화.

처음 불길기 치솟은 승용차 안의 가스라이터가 태양열로 폭발하여 발생한 화재로 보고 원인을 조사중.

97/ 07/ 26 원자력연구소 불

10시경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소 제2연구동에서 불이 나, 집기 등 사무실 내부를 태워 경찰추산 1천3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만에 진화.

천장 쪽에서 불길기 치솟고 있었다는 청소부의 발에 따라 전기제품을 규정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

97/ 07/ 26 해운대 시장 창고서 불

12시 10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반여시장내 상가건물 2층 공동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점포 20여개를 태우고 2시간여만에 진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불길기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노후전선에 의한 전기합선이나 누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

97/ 07/ 27 휴게소 폭발, 2명 중상

5시 10분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휴게소에서 LP가스 폭발사고 발생.

이 폭발로 차에서 쉬고 있던 여행객이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는 등 13명의 여행객들이 부상하였고, 사고 현장인 7평 크기의 스낵코너, 농수산물 판매장 등 건물 2동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경찰은 스낵코너 밖에 설치되어 있던 상업용 LP가스통 6개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가득 고여있다 자판기의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

97/ 07/ 29 자동차에어컨 제조업체 화재

20시경 경남 창원시 성산동 자동차에어컨 제조업체 동환산업에서 불이 나, 9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만에 진화.

냉매제 등 화학물질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로 진화에 어려움.

97/ 07/ 29 관악산 성주암에 화재

23시 15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 관악산 등산로 부근 성주암에서 전기누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불이나 15평 암자를 모두 태우고 1시간만에 진화.

화재 당시 암자에는 주지스님 등 2명이 자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